

晚淸 北京詩社 龍喜社와 한중 문학 교류

허방^{*}

1. 서문
2. 龍喜社 문인과 朝鮮使臣의 교류
3. 용희사의 한중 문학 교류 성과
4. 결론

<국문초록>

용희사는 중국 호남성 선화현 출신 문인들이 주로 모이는 북경의 선화회관에서 창설되었다. 용희사는 19세기말 조선사신이 중국 문인들과 교류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 청말 민국초의 여러 시화집 등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 용희사의 구성원들은 매우 많은데, 지금까지 확인된 인물만 해도 40여 명이 넘는다. 그 중 俞明震은 연암 박지원과 교분을 맺었던 俞世琦의 증손이기도 하다.

용희사의 문인들은 1887년에서 1894년까지 조선 사신들과의 시문 창화 활동을 지속하였다. 창화시집으로 『강정집』, 『지북집』, 『용희사해동심시집』, 『소해집』, 『헌관영춘집』 등이 있다. 양국 문인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으로 『송균야집도』, 『강정도』, 『용희도』 등이 있다. 그 중 1894년(光緒20) 李正魯가 동지정사로 북경에 체류했을 때 용희사 문인들과 창화한 시문들을 편찬한 『獻館泳春詩冊』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을 통해 당시 문학 교류의 활약상을 알 수 있다.

본고는 황응의 『전해금언』을 통해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양국

* 중국 長沙民政學院 교수, 서울大學校 國語國文學科 博士課程 修了.
전자우편: dae02042003@yahoo.com

문인들이 공유한 시대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19세기 말의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황응과 조인승이 어떻게 사고하고 시국에 대처했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핵심어: 龍喜社, 徐樹銘, 黃膺, 曹寅承, 한중 문학 교류

1. 서론

조선시대 한중 양국 문인들의 활발한 문학 교류는 18세기 담헌 홍대용과 연암 박지원 등 북학과 문인들의 연행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19세기 초에 잠시 단절되었다가 추사 김정희와 三斯 洪良厚 등에 의해 재개되었다. 김정희와 그의 문하 역관들의 연행을 통해 청조의 금석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되었고, 홍양후를 비롯한 북학과 후예들의 연행을 통해 18세기 북학과 연행의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졌다.¹⁾

18세기와 비교해보면 19세기의 한중 문학 교류의 특징은 이를 주도한 중국 문인 그룹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²⁾ 한중 양국 문인들의 만남을 주선한 중심인물로서 잘 알려진 사람은 陶澍, 董文煥, 黃膺 등이다. 이들 문인 그룹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尹虎彬은 乾隆 연간의 紀昀, 嘉慶 연간의 陶澍, 光緒 연간의 黃膺을 중심으로 청나라 중후반 한중 문학 교류의 양상을 살펴보았다.³⁾ 유성준은 『淸詩匯』에 실린 조선인의 시들을 통해 양국 문인의 시교 관계와 조선인 시의 주제별 풍격을 검토한 바가 있다. 시교 관계에 있어서 陶澍, 黃膺, 乾隆皇帝, 程伯序, 洪良浩 등 인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저자가 『淸詩匯』에 실린 시와 시화만 이용하

1) 김명호, 『동문환의 『한객시존』과 한중문학교류』, 『한국한문학연구』26, 한국한문학회, 2000, 391~418면.

2) 孔憲霖·葉名灃을 중심으로 한 문인 그룹으로, 정치적으로는 서양 열강에 대한 항쟁을 주장한 淸流派 관료였고, 顧炎武를 숭상하는 고증학자였으며, 桐城派에 속하는 문인이었다.(김명호, 위의 논문, 401~402면 참고.)

3) 尹虎彬, 『清代的中朝文學交流』,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北京: 中央民族大學, 1986年 第3期, 93~99면.

였으며 관련 방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남겼다.⁴⁾ 한영규도 『청시회』에 실린 조선 문인들의 시들을 주목하여 『國朝正雅集』, 『朝鮮詩錄』, 『道咸同光四朝詩史』 등 시선집에 실린 작품들과 비교 분석하여 『청시회』만의 선별 특징을 지적하였다. 특히 陶澍와 黃膺의 한중 문학 교류 활동에 대해 陶澍의 『陶文毅公全集』과 李承五의 『燕槎日記』 등 자료를 통해 전면적으로 살펴보았다.⁵⁾

그런데 청나라 후기 시선집에 실린 조선 문인 한시에 관한 연구에 비하면 황응을 중심으로 결성된 19세기 말의 중요한 문인 시사인 龍喜社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미진한 부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앞서 언급된 윤호빈, 유성준, 한영규에 의해 소개가 되었으나 전부 徐世昌이 편찬한 『淸詩匯』(一名 『晚晴稔詩匯』)에 실린 시화에 의거하여 간략하게 언급만 하고 말았다. 이와 같은 한계는 허경진·류정의 『晚淸時期的 朝中文人詩社 龍喜社 小攷』(이하 「소고」로 약칭함)에 의해 어느 정도 극복되었다.⁶⁾ 이 논문은 중국 國家圖書館에 소장되어 있는 『龍喜社海東尋詩集』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용희사의 설립 시기, 참여한 동인 등을 밝혔다. 처음으로 『만청이사회』 이외의 문헌 자료를 이용하여 용희사를 조명하였기 때문에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고」에는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 우선 周自龠이란 湖南省 출신 문인과 조선사인의 교류를 부정확하게 기술하였다. 용희사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가 조금 부족하고, 용희사의 한중 문학 교류 성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다. 또한 용희사 문인들과 조선 문인들이 공유한 시대 인식을 밝히지 못한 것도 아쉬운 점이다.

필자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용희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중국 湖南省 長沙市의 湖南圖書館에서 『善化館志』와 『填海禽言』 등 자료를 검토하였을 뿐만 아니라 淸末 民國初의 몇몇 詩話에서 한중 문학 교류에 관한 일련의

4) 柳晟俊, 「『淸詩匯』 所載 朝鮮人詩 考」, 『中國研究』23, 韓國外國語大學校 中國問題研究所, 1999, 207~232면.

5) 한영규, 「중국 시선집에 수록된 19세기 조선의 한시」, 『韓國實學研究』16, 韓國實學學會, 2008, 261~297면.

6) 허경진·류정, 『晚淸時期的 朝中文人詩社 龍喜社 小攷』, 『동아인문학』14, 동아인문학회, 2008, 165~188면.

자료를 발굴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19세기 말 한중 문학 교류의 一端을 實事求是의로 밝히고자 한다.

2. 龍喜社 문인과 朝鮮使臣의 교류

1) 중국 湖南 문인들과 조선사신

용희사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중국 湖南省 출신의 문인들이다. 湖南省은 중국 中南部 지방에 위치해 있고 대부분 지역은 洞庭湖 남쪽에 있기 때문에 ‘湖南’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境內에 湘江이 남북으로 관통하기에 호남성은 ‘湘’으로 약칭하게 된다. 춘추전국 시대에 초나라의 일부였고, 예로부터 유명한 인물들을 많이 배출하였다. 蓮溪 周敦頤(1017~1073, 湖南 道縣)와 船山 王夫之(1619~1692, 湖南 衡陽)는 그 중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龍喜社는 북경에 있는 湖南 善化會館에서 설립한 것이다. ‘龍喜’는 옛날 長沙의 동쪽에 있었던 龍喜縣을 지칭한 것이다. 송나라 때에 縣의 이름을 ‘善化縣’으로 고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희’라는 옛날 이름을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까지 계속 사용하였으므로, 그 옛날 이름을 따서 詩社 이름을 지은 것이다. 善化縣은 1912년에 長沙縣에 합병되어 현재 長沙市의 일부가 되었다. 북경의 善化會館은 湖南 善化 출신의 문인들이나 과거시험 참가자들이 거처하던 곳이었다.⁷⁾ 19세기 후반 黃膺을 중심으로 결성된 용희사는 湖南文壇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중 문학 교류에 있어서도 의미가 크다. 龍喜社主 黃膺은 다음과 같이 용희사의 유래를 소개하였다.

용희사는 북경 선무문 동쪽의 선화회관에 위치해 있다. 선화는 장사군의 가장 으뜸가는 고을이다. 장사현과 같이 장사성 외곽에 붙어있다. 오대의 한 나라 건우 연간에 장사성의 동쪽 지방을 쪼개어 용희현을 설치하였다. 송나라

7) 唐燕, 『清末民初湖南在京會館的演變』, 『文史博覽』, 2012年 第4期, 16~18면.

원부1년에 현의 이름을 선화로 고쳤으며 원나라, 명나라, 국조(청나라-인용자)까지 그대로 사용하였다. 시사의 이름은 ‘용희’로 정하는 것은 그의 연혁에 따라 지은 것이다.⁸⁾

중국 호남 문인들과 조선 사신들의 교류는 19세기 전반부터 이미 활발하였다. 그 때 호남 문인들을 대표한 인물은 陶澍이다. 陶澍(1779~1839)는 字가 子霖이고 號는 雲汀으로, 湖南 安化 사람이다. 1802년에 進士가 되어 翰林院 編修, 御史, 安徽巡撫, 江蘇巡撫, 兩江總督 등 내외 요직을 두루 역임했고, 저술로 『陶文毅公全集』 등이 있다. 그는 한림원에 있을 때에 조선사신과 많이 교류하였다. 徐世昌(1855~1899)이 편찬한 『晚晴簃詩匯』(권200)에 그들이 창작한 시들이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⁹⁾

19세기 후반에 와서도 이와 같은 한중 문학 교류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용희사의 唱和詩集인 『龍喜社海東尋詩集』에는 용희사의 일원인 洪汝冲이 쓴 「敍」가 수록되어 있다. 이 서문에서는 호남 문인들과 조선사신의 교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조선 사신들이 호남 문인들과 교류하는 것은 장사의 주자암 선생부터 시작하였으며 서수형 시랑과 황녹천 농부¹⁰⁾가 실로 이 전통을 이어나갔다. 이미 몇 년이나 계속 하였으며 몇 차례 사신들과 교류하였다. 만날 때마다 시문 창작을 하여 작품도 문채가 뛰어나고 불만하다.¹¹⁾

이 기록을 통해 19세기 후반 호남 문인과 조선사신의 교류의 역사를 대략 알 수 있다. 周壽昌이 양국 문인의 교류를 시작하였고, 徐樹銘과 黃膺이

8) “龍喜社在京師宣武門東善化會館。善化爲長沙郡首邑，與長沙縣同附郭。五代漢乾祐間，析長沙東境置縣龍喜，宋元符元年改善化，元明泊國朝因之。社稱龍喜，從其朔也。”(黃膺, 『跋』, 『龍喜社海東尋詩集』, 中國 湖南省 長沙市 湖南圖書館 所藏本(이하 호남도서관 소장본으로 약칭함), 索書號: 413/325)

9) 徐世昌, 『晚晴簃詩匯』(권200), 『續修四庫全書』(集部) 第1633冊, 上海古籍出版社, 2002.; 유성준, 앞의 논문, 210~215면, 한영규, 앞의 논문, 281~286면 참고.

10) 農部主事를 가리킨다. 농부는 戶部를 예스럽게 칭한 것임.

11) “東使之交湘人，自長沙周自龕先生始，而徐壽蘅侍郎，黃鹿泉農部實繼之。已歷數年，更數使，會必以詩文，文采斐然可觀。”(홍여충, 『서』, 『龍喜社海東尋詩集』, 湖南圖書館 所藏本)

이 전통을 이어받아 발전시켰다. 본고에서 논하고자 하는 용희사는 바로 19세기 후반의 한중 문학 교류를 주도한 호남 문인들의 모임이다.

周壽昌(1814~1884)은 字가 應甫이고, 호는 荇農이며, 晩年の 號는 自龠이다. 湖南 長沙 사람이다. 1845년(道光25)에 進士가 되어 內閣學士까지 지냈다. 『淸史稿』(권491) 등 史料에 그의 전기가 실려 있다. 문집으로 『思益堂集』이 전한다.¹²⁾

허경진·류정의 『小攷』에는 周自龠에 관한 언급이 몇 군데 있으나, 그의 이름과 생몰연도를 소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도 정확하다고 보기 어렵다. 예컨대 “용희사 설립한 후 북경에 온 조선사신이 朱自龠을 알게 되어서 용희사의 시사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라고 했으나,¹³⁾ 周壽昌이 별세한 지 3년 뒤인 1887년에야 용희사가 창립되었으므로 그는 용희사의 구성원이 될 수가 없다.

비록 용희사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주수창이 조선사신과 활발하게 교류한 것만은 확실하다. 이 사실은 조선사신의 사행 기록인 연행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례로 李裕元(1814~1888)의 『薊槎日錄』을 보면 주수창과의 교류와 관련된 일기와 장화시를 발견할 수 있다.¹⁴⁾ 또한 이유원의 문집인 『嘉梧藁略』 중에도 관련 시문들이 적잖이 수록되어 있다. 예컨대 『嘉谷茶屋記』에서 그는

최근에 내가 연경에서 돌아왔다. 주자암이 용정의 진품 雨前茶를 선물해주었다. 연못물을 길어 같이 끓였다. 술과 주발을 소나무 그늘과 대나무 그림자 사이에서 늘어놓고는 해가 지는 줄도 모른다.¹⁵⁾

라고 했다. 그리고 『齊年序』에서도

12) 湖南圖書館에 所藏된 周壽昌의 『思益堂集』은 光緒14年(1888)刻本이다. 索書號: 437/567.

13) 허경진·류정, 앞의 논문, 167면.

14) 李裕元, 『薊槎日錄』, 光緒元年(고종12, 1875)十月二十二日, 『周侍郎壽昌 題詩於便面 贈之以致殷勤 故依韻和之』; 十月二十六日, 『寄周自龠侍郎』; 十一月一日, 『寄自龠』. 林基中·夫馬進편, 『燕行錄全集日本所藏編』,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01, 권3.

15) “近自燕京還 周自菴贈龍井雨前眞茶 汲潭水和煎 列鐺碗於松陰竹影之間 不知日之夕.”(이유원, 『嘉谷茶屋記』, 『嘉梧藁略』, 『한국문집총간』 권315, 민족문화추진회, 2003)

내가 올해 10월에 정사로 연경에 갔는데 즉 내 회갑의 이듬해이었다. 그때 주자암 대인과 서신 왕래를 하였다. 서로 속을 터놓고 대하였으니, 이는 뜻과 도를 같이 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동갑임을 중히 여겨서였다. 아쉽게도 위공(魏國公 韓琦-인용자)의 「육로도」, 그리고 노공(潞國公 文彥博-인용자)의 「사인회」와 같은 그림을 그리지 못하였다. 문장으로 추기하여 마음을 털어놓았으니 제목은 ‘제년’으로 정하였다.¹⁶⁾

라고 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수장은 이유원과 빈번히 교류하였다. 시문을 창화했을 뿐만 아니라 차, 도장, 금석문과 같은 선물도 서로 주고받았다. 이유원이 귀국한 후에도 이와 같은 우정을 회상하며 「齊年序」까지 지었다. 요컨대 주수장은 조선사신과 적극적으로 교류한 호남의 대표적 문인이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용희사의 성황을 이루게 된 것이다.

徐樹銘(1824~1900)은 자가 伯澄이고 號는 壽衡으로, 湖南 長沙 사람이다. 1847년(道光27)에 進士가 되어 兵部, 吏部, 禮部, 刑部의 侍郎과 工部尙書 등 요직을 지낸 인물이다. 저술로 『澗園遺集』과 『約園志』 등이 있다. 서수명은 고위급 관료로서 시문을 좋아하여 조선사신과 널리 교류하였다. 용희사의 구성원 중에서 서수명은 조선사신과 교류한 첫 번째 인물이다. 『龍喜社海東尋詩集』 중 황응의 「跋」에 의하면 서수명은 徐相雨¹⁷⁾가 冬至副使로 북경에 온 1887년에 그와 시문 창화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6) “某於旃蒙之年壽星之月充正使赴上都，即余回甲之翼年也。時與周自弁大人筆札相通，輸肝瀝膽，以共同志同道，重之同庚也。慨未就魏公之六老圖，潞公之四人會。追爲之奮藻散懷，以齊年名篇。”(이유원, 「齊年序」, 앞의 책) 그밖에 「贈周自弁白頭山石銘」, 「答周自弁書(共二通)」, 「自弁贈印章三方 篆文可敬」에도 관련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17) 서상우(1831~1903)는 자가 殷卿이고 호가 圭廷이다. 본관은 達城이며 환재 박규수의 제자이다. 1882년 12월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고 1883년 11월 동지사의 서장관으로 임명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84년 갑신정변 직후 參議交涉通商事務에 임명되었다. 1885년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86년 協辦交涉通商事務로 天津에 파견되어 北洋大臣 李鴻章에게 제1차 第一次朝露密約事件을 설명하였다. 귀국한 뒤 공조관사로 임명되었으나, 곧이어 陳賀兼冬至正使로 임명되어 또다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94년 金弘集內閣의 내무대신이 되었고, 이듬해 증추원의 一等議官에 임명되었다. 시호는 文憲이다.

그 후 시사의 동인들이 잇따라 조선 사신들과 교류하게 되었다.

광서 정해년(1887)에 다시 지은 관사가 완공되었을 때 내가 회관에서 시사를 창립하였다. 마침 조선 사신인 판중추부사 서상우가 북경에 와 있었다. 長沙 사람인 서수형 시랑이 먼저 시문 창화하는 모임을 소집하였고 시사 동인들이 이에 따라 하였다. 이 해부터 사신들이 올 때마다 시사 동인들을 방문하였다. 같은 뜻을 가진 시문 우인들은 수차례 모임을 가졌고 시를 읊고 전별하여 해마다 예사로운 일로 되었다.¹⁸⁾

이러한 사실은 역시 연행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李承五¹⁹⁾의 『燕槎日記』(1887)에도 다음과 같은 관련 기록이 있다.

식사 후에 古農²⁰⁾과 같이 선무문 밖 철문로 동쪽 서 도어사의 집으로 갔다. 주인이 우리를 맞이하여 같이 들어갔다. 용모가 청수하여 기색이 맑다. 강개하여 호방하다. 해학을 섞어 농담을 잘했다.²¹⁾

식사 후에 高翁과 같이 서 사랑과 약속한 장소로 갔다. …… 조금 이따 시랑이 관청으로부터 왔다. 곧 나를 위해 주연을 베풀었으니 이것은 사랑의 전별연이다. 극히 풍성하여 더불어 술잔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손님과 주인이 서로 읊하는 예를 행하였으니, 그 모습이 몹시 공경하였다.²²⁾

18) “光緒丁亥歲，重葺館舍落成，余於館中勸詩社。朝鮮使者徐秋堂中樞相雨適來，長沙徐壽衡侍郎首爲文燕，社中踵之。自是年，賁使來必訪社中人。同志吟朋，迭爲雅集，賦詩祖道，歲以爲常。” (황응, 『발』, 『용희사해동심시집』, 호남도서관 소장본)

19) 이승오(?~?), 1887년 형조판서에 임명되었으며, 또한 陳質正使가 되어 청나라에 다녀왔다. 1894년 병조판서·예문관제학을 지냈고, 1896년에는 奎章閣卿兼王太子宮內講官에 임명되었다. 1897년 祖宗의 靈을 誣하였다고 하여 종신유배형에 처해졌다가 1907년에 풀려났다.

20) 古農은 이승오의 庶三從兄 李承漢(1831~?, 字는 景雲)의 號이다. 그는 자제군관으로 수행하였다. 관련 내용은 이승오, 『연사일기』 권1, 2월 22일조, 임기중 편, 『연행록전집』 권86 참조.

21) “飯後與古農往宣武門外鐵門路東徐都御史家，主人肅客而入。貌秀而神清，豪爽慷慨，善笑語，雜以諧諠。” 이승오, 위의 책, 권3, 6월 초9일조.

22) “飯後與古農往赴徐侍郎之約。……少焉，侍郎自公來赴，直爲設宴，是侍郎之饌也。極其豐盛，且於酬酢之際，必行賓主相揖之禮，貌甚恭恪。” 이승오, 앞의 책, 권4, 8월 초7일조.

서수명은 시문에 능하여 용희사의 중심인물로 조선 사신들과 빈번하게 교류하였다. 용희사의 시집이나 창화시 중에 서수명의 시나 문장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용희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社主人 黃膺이다. 안타깝게도 기존 연구들은 그의 생애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허경진·류정의 『소고』는 다만 『龍喜社海東尋詩集』 중 실린 홍여충의 『敍』에 의거하여 그의 생애를 간단하게 소개했을 뿐이다. 본고에서는 여러 문헌을 통해 황응의 생애를 좀 더 소상하게 밝혀 보고자 한다.

黃膺은 字가 鹿泉 혹은 麓泉이고 晚號는 蓼園으로, 長沙 사람이다. 1873년(同治12) 癸酉科의 舉人으로 廣西와 雲南의 知州를 역임했다. 저술로 『龍喜社海東尋詩集』과 『填海禽言』 등이 있다.²³⁾ 또한 만년의 친구인 袁嘉穀의 『臥雪詩話』를 통해, 비록 생몰년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황응이 적어도 80세까지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⁴⁾ 그리고 『善化館志』에 의하면 황응은 1888년(光緒14)부터 선화회관의 관리자를 역임하였다.²⁵⁾ 그는 용희사를 설립한 뒤 贊을 지었는데, 이 찬도 『선화관지』에 수록되어 있다.

우리 고을은 長沙郡에 가장 으뜸이며 옛날에 ‘용화’라고 했는데
 많은 사인들이 관인이 되어 북경 회관에 모여 있네.
 학문이 깊고 문체가 뛰어나 시문을 읊는 모임을 시작하니
 불러 모은 벗들은 香草 같은 현인군자라네.
 吾邑首善, 舊曰龍喜.

23) 尋霖·龔篤清 編, 『湘人著述表』, 長沙: 嶽麓書社, 2010, 988면.

24) 袁嘉穀(1872~1937)은 字는 樹五이고 號는 澗圃이며 雲南 石屏 사람이다. 光緒29년(1909)에 殿試二甲으로 급제하고 그 후 經濟特科考試에서 壯元 급제했다. 이는 雲南省 사상 첫 번째 壯元이라고 한다. 그의 저작은 『袁嘉穀文集』으로 출판되었다. 袁嘉穀의 『臥雪詩話』 中에 다음과 같이 黃膺에 관한 기록이 있다. “鹿泉, 湘中名孝廉. 博雅工詩, 宦滇有聲.” “詩老年已八十, 遠比劍南, 家居長沙, 近抗西涯. 殷殷以詩筒來往.”(『袁嘉穀文集』,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1, 第2冊, 825면)

25) “黃膺, 字麓泉, 戶部·河南司, 同治癸酉科陳銘鼎榜.” 『善化館志』, 卷下·舉人, 15면. 호남도서관 소장본, 索書號: 296.38/47. 『선화관지』에 그의 서문이 실려 있고, 『歷年經營會館姓氏』에도 그의 이름이 보인다. 黃膺, 『重修善化館記』, 『善化館志』 卷上, 記, 1면 앞과 2면 앞; “黃麓泉農部舊, 光緒十四年二月初四日”, 『歷年經營會館姓氏』, 『善化館志』, 卷上, 2면 앞.

蔚矣冠裳， 邕然京邸。
 儒疋載馘， 吟事斯起。
 嘯侶命儔， 杜衡芳芷。²⁶⁾

한중 양국 간에 전통적인 조공관계가 유지되던 1894년까지 황응은 戶部主事로 계속 북경에 있었다. 戊戌變法(1898) 때에 그는 維新派를 지지하여 南學會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²⁷⁾

황응과 조선사신의 교류 역시 연행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예컨대 이승오의 『觀華誌』(1887)에 황응과 용희사에 관한 기록이나 창화시가 적지 않게 수록되어 있다.

낙천은 형초 지방의 호걸이며 송나라 시인 황정건의 후손이다. 향시에 응하여 거인이 되어 지금 호부 낭중으로 재직하고 있다. 선화회관에서 시사를 창설하여 ‘용희’로 칭하였다. 사람 됨됨이 명랑하고 사소한 것에 구애되지 않았다. 풍류를 갖추고 호방하였고 남을 사랑하여 선행을 즐겨 했다. 내가 북경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먼저 시를 써서 증정해 주었다. 또한 고농을 통해 몇 차례 만남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내가 공사다망하여 미처 만나지 못했다. 7월 초7일 전날에 그가 비를 무릅쓰고 방문하러 왔다. 가슴속에서 시를 꺼내 보여 주었다. 그 뜻이 참 감동스럽다. 시어는 맑고 빼어나며 필치가 고아하고 힘차서 흠모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 그래서 자신의 서투른 기량을 잊고 그대로 모방하여 시를 지었다. 비록 훌륭한 것에 하찮은 것으로 뒤를 잇는 부끄러움을 알고는 있지만, 다만 한바탕 웃음거리를 보태는 바이다.²⁸⁾

26) 『龍喜吟社榜額贊』, 『善化館志·聯語榜額附記』 5면 앞. 『楚辭』『離騷』에 “畦留夷與揭車兮，雜杜衡與芳芷.”라고 했다. ‘杜衡芳芷’는 향기로운 풀처럼 인격이 뛰어난 賢人君子를 가리킨다.

27) 周秋光, 『湖南維新運動期間南學會的創辦與文明排外』,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1998年第5期, 112~117면.

28) “麓泉， 荆楚豪傑之士， 宋朝詩人黃山谷之裔也。 學于鄉， 現任戶部郎。 結社于善化會館， 稱龍喜。 爲人味曠， 不拘小節， 風流跌宕， 愛人好施。 聞余入京， 先以詩贈， 且因古農， 屢要一識。 公私紛擾， 未及面晤， 重七前日， 冒雨來訪， 出懷中詩以示之， 其意可感。 詞格清俊， 筆力蒼健， 令人艷羨。 忘拙依畫， 雖知續貂之羞， 聊博噴蜂之資。”(이승오, 『觀華誌·詩鈔』 卷11, 임기중 편, 『연행록총간』, 누리미디어, 2011) ‘噴蜂’은 입 안에 머금은 밥알이 벌떼처럼 튀어나올 정도로 웃음을 참

이와 같이 이승오는 1887년의 여행을 통해 중국 문인들과 활발한 교류를 하였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용회사 문인들과의 교류이다. 이승오는 귀국하는 도중에 용회사의 文友들을 그리워하며 시를 지어 남겼다. 이 시의 小序를 통해 당시의 활발한 교류를 알 수 있다.

이번 사행에 우연히 용회사의 여러 우인들과 만나게 되었다. 서로 아는 것도 깊고 사랑하는 것도 절실하다. 첫 번째 모임은 송균암에서 가졌고 두 번째 모임은 천복당에서 가졌으며 세 번째 모임은 사방득 사당에서 가졌고 네 번째 모임은 악비 사당에서 가졌다. 또한 누각과 산수 사이에서 문장과 술을 즐겼으니 고향을 떠난 고통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이별한 후에 추억하니 슬픈 생각이 나서 시를 지었는데, 사람으로 하여금 오래 살던 타향을 제2의 고향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저도 모르게 생기게 하였다.²⁹⁾

그의 일기와 시초를 종합해보면 이승오는 용회사 문인들과 네 차례 모임을 가졌다. 첫 번째 만남은 1887년(광서13)7월 24일(이하 음력) 松筠庵에서 가졌다. 그 날 모두 12명이 참가하였는데, 기념으로 『송균아집도』를 그렸다.³⁰⁾ 두 번째 만남은 8월 6일 天福堂에서 가졌다. 그 날 역시 12명이 참가했으며, 『皇華清讌聯韻』이란 聯句詩를 지었다.³¹⁾ 세 번째 만남은 같은 날 오후에 謝枋得 사당에서 가졌다.³²⁾ 네 번째 만남은 8월 7일 岳忠武王祠에서 가졌으며, 역시 연구시를 지었다. 그 때에는 많은 장화시를 남겼다.³³⁾

기 어렵다는 뜻이다.

- 29) “今行偶與龍喜諸友相遇，知之深，愛之切。一遊于筠庵，再遊于天福，三遊于謝祠，四遊于岳廟。又於臺榭泉石之間，文酒源源，頗忘離索之苦。別後追想，黯然而有作，令人不覺并州故鄉之思。”(이승오, 『道中追思龍喜社友』, 『관화지』권11, 임기중 편, 『연행록총간』, 누리미디어, 2011)
- 30) 松筠庵은 楊椒山祠라고도 한다. 명나라 嘉靖 연간의 충신인 楊繼盛(1516~1555)의 故宅이고 후에 암자로 변했다. 당시 지은 시들은 모아 『松筠庵雅集』으로 편집하였다. 이승오, 『연사일기』권4, 7월 24일조, 『연행록전집』 권86,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참고.
- 31) 天福堂은 정양문밖 좌측 골목에 있는 주점으로 그때 당시 사대부들이 연회를 베푸는 장소이다. 당시 지은 시로 『天福堂聯句』 등이 있다. 위의 책, 8월 6일조 참고.
- 32) 謝文節公祠는 謝枋得(1226~1289)의 祠堂으로 선무문밖에 있다. 당시 지은 시로 『謝文節公祠分韻』 등이 있다. 위의 책, 8월 6일조 참고.
- 33) 岳忠武王祠는 岳飛(1103~1142)의 祠堂으로 송균암의 북쪽에 있다. 경치가 아름답고 여러 모임 장소들 중에 으뜸으로 꼽혔다고 한다. 당시 지은 시로 『岳忠武王祠聯韻』 등이 있다. 위

2) 용희사의 구성원들

이와 같이 한중 문화 교류에 적극적이었던 용희사의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필자는 용희사의 몇 차례 모임에 관한 기록을 통해 그 구성원 40여 명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용희사의 구성원들이 가진 모임은 『용희사해동심시집』, 『獻館詠春詩冊』, 이승오의 『연사일기』 등에 언급된 것만 해도 여러 차례가 있다. 용희사 구성원 중 『淸史稿』와 같은 자료에 실린 몇몇 사람 이외에 대다수는 잘 알려진 인물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湘人著述表』, 『善化館志』 등 湖南圖書館의 소장 자료에 의거해 勞啓捷 등 아홉 사람에 관한 정보를 더 보완하고자 한다.

勞啓捷 字는 闔忱이다. 戶部 廣東司와 刑部 安徽廣西司郎中을 역임했다. 同治 甲子科並補行辛酉科 舉人이다.³⁴⁾

龔鎮湘 字는 省棼이다. 同治 丁卯科의 舉人이고 戊辰科 進士이다.³⁵⁾

楊壽時 이름을 壽彤으로 고쳤고, 字는 惠皆이다. 候選知縣이다. 同治 丁卯科 舉人이다.³⁶⁾

李登雲 字는 孝笙이고 衡山 사람이다. 1889년(光緒15)에 進士가 되어 刑部 山西主事 등 직을 역임했다. 저술로 『萬山草堂詩集』, 『萬山草堂詩續集』(六卷) 등이 호남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洪汝冲 字는 味丹이고 寧鄉 사람이다. 刑部 主事와 遼陽知州 등을 역임했다. 저술로 『候蛩詞』(五卷), 『候蛩詞合編』, 『詞韻中聲』(二卷) 등이 호남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의 책, 8월 7일조 참고.

34) 『善化館志』 卷下· 舉人, 14면 앞.

35) 위의 책, 14면 뒤.

36) 위의 책, 14면 앞.

章華 1872~1930. 字는 曼仙이고 湖南 長沙 사람이다. 1895년(光緒21)에 進士가 되어 軍機章京 등을 역임했다. 저술로 『倚山閣詩』(二卷), 『淡月平芳館詞』(一卷) 등이 호남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杜本崇 1861~? 字는 翹生이고 湖南 長沙 사람이다. 1889년(光緒15)에 進士가 되었다. 御史로 재직했을 때 慈禧太后的 垂簾聽政을 반대하여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俞明震 1860~1918. 字는 恪士이고 號는 觚庵이며 浙江 紹興 사람이다. 벼슬은 甘肅提學使까지 지냈다. 시를 잘 지어 시집으로 『觚庵集』이 있다. 연암 박지원이 1780년 북경에서 교분을 맺었던 俞世琦(호 黃圃)의 증손이다.³⁷⁾

曾廣鈞 1866~1929. 字는 重伯이고 號는 觚庵이며 湖南 湘鄉 사람이다. 曾國藩의 長孫이다. 1889년(光緒15)에 進士가 되어 翰林院 編修를 제수 받았다. 中日戰爭(1894)후에 廣西知府 등을 역임했다. 詩를 잘 지어 李希聖, 汪榮寶, 孫希孟과 함께 玉溪體를 잘하는 四大家로 일컬어졌다.

況周頤 1859~1926. 原名은 周儀인데 宣統皇帝의 諱(愛新覺羅·溥儀)를 피하여 이름을 周頤로 고쳤다. 字는 夔笙이고 號는 玉梅詞人이며 湖南 寶慶 사람이다. 1879년(光緒5)에 舉人이 되어 內閣中書 등을 역임했다. 평생 詞의 창작에 매진했으며 특히 詞論에 능통하였다. 王鵬運, 朱孝臧, 鄭文焯과 함께 淸末 四大家로 일컬어졌다. 저술로 『蕙風詞』, 『蕙風詞話』 등이 있다.

시대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지만, 용희사의 구성원들은 대체로 호남 문인을 중심으로 하되 滿洲 宗室이나 河南, 直隸, 安徽 등 타지역 출신 문인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용희사는 조선 사신이 중국 문인들과 교류하는 데에 대단히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용희사 참가자들

37) 김명호, 『『열하일기』 ‘補遺’의 탐색』, 『동양학』5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13~14면.

의 약력이 더욱 많이 밝혀질수록 관련 문헌이 발굴될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

3. 용희사의 한중 문학 교류 성과

용희사 동인들은 조선 사신들과 시문을 창화했을 뿐만 아니라 창화시집을 편찬하여 출판하기까지 하였다. 필자가 호남도서관 소장 자료를 통해 확인해본 결과, 적어도 창화시집은 4種, 한중 문인의 모임을 그린 그림은 3종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목	제작 시기	참여한 조선 문인	비고
1	『江亭集』	光緒庚寅(1890)	金永翼 등	唱和詩集
2	『池北集』	光緒庚寅(1890)	金永翼 등	唱和詩集
3	『龍喜社海東尋詩集』	光緒癸巳(1893)	李乾夏 등	唱和詩集
4	『蘇海集』	光緒癸巳(1893)	崔性學 등	唱和詩集
5	『獻館泳春詩冊』	光緒甲午(1894)	李正魯 등	唱和詩集
6	『松筠雅集圖』	光緒丁亥(1887)	李承五 등	그림
7	『江亭雅集圖』	光緒庚寅(1890)	金永翼 등	그림
8	『龍喜圖』	光緒癸巳(1893)	李乾夏 등	그림

위의 표에서 언급한 『江亭集』 등 창화시집들과 『江亭雅集圖』³⁸⁾, 『松筠雅集圖』³⁹⁾, 『龍喜圖』⁴⁰⁾는 사실 용희사의 한중 교류 성과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중에서 비교적 널리 알려진 문학적 성과는 바로 허경진·류정의 『소고』에서 이미 자세하게 검토한 『龍喜社海東尋詩集』이다. 필자가 의기한 호남도서관 소장본(이하 湘圖本)은 『소고』에서 검토한 국가도서관 소장본(이하 國圖本)과 비교해보면 표제부터 板刻, 版心 등 서지사항에

38) 李僖魯, 「題江亭雅集圖」, 徐世昌, 『晚晴簃詩匯』 권200, 『續修四庫全書』1633冊 참조.

39) “晴 麓泉, 宣丞, 仲阮, 翹雲連袂而來, 暢談甚歡. 麓泉以『松筠雅集圖』來, 壽衢作序兼以十四韻賦十四篇古詩, 茶農繪其事. 儘是不易得之珍玩也, 可以歸託於洛下社友也.”(李承五, 『燕樵日記』 권4, 7월 29일조, 『연행록전집』 권86, 동국대학교출판사, 2001)

40) “賓主凡廿五人, 著錄所作於右. 爲龍喜社圖凡五, 詒東客各一, 其一存社中.”(黃膺, 『跋』, 『龍喜社海東尋詩集』, 호남도서관 소장본)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제	판각사항	장서인	版心
湘圖本	龍喜社海東尋詩集	21行29字	晚晴移詩社	上: 龍喜社藁 下: (空白)
國圖本	尋詩集	10行20字	國	上: (空白) 下: 龍喜社

이와 같은 차이로 미루어, 『용희사해동심시집』이 몇 차례 판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용희사의 문학적 성과를 검토할 때 『용희사해동심시집』을 비롯한 저작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다음은 두 가지 대표적인 저작을 통해 용희사의 한중 문학 교류 성과를 좀 자세하게 검토하겠다.

1) 『獻館詠春詩冊』

『獻館詠春詩冊』은 1894년(光緒20) 李正魯⁴¹⁾가 동지정사로 입연했을 때 용희사 문인들과 장화한 시문들을 편찬한 것이다. 『만청이사회』에 이정로와 황장연의 題詩가 있어서 이 시집의 존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그 원본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필자는 魏建功의 『龍喜詠春』⁴²⁾과 袁嘉穀의 『臥雪詩話』, 楊鐘羲의 『雪橋詩話餘集』 등 자료를 통해 일부 내용을 복원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楊鐘羲의 『雪橋詩話餘集』에 실린 내용을 살펴보겠다.

41) 李正魯(1838~1923)는 자가 大哉, 호는 沙溪, 본관은 全義이다. 1858년(철종 9)에 정시에 병과로 급제, 가주서·초계문신·용강현령·부교리·정언·응교를 거쳐, 1863년 칠종실록낭청으로 임명되었다. 그 뒤 부호군 및 각 조의 참의를 거쳐 1875년(고종 12)에 경주부윤·충주목사·한성부좌윤을 역임하였다. 1893년 동지정사로 임명되어 청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귀국하여 중국의 철도부설, 청나라와 조선과의 관계에 대하여 고종에게 복명하였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난 뒤 형조판서가 되었고, 이조판서로 군국기무처에 관여하였다. 1898년 산릉도감제조로 소홀한 능 관리 때문에 鐵島에 15년간 유배처분을 받았다. 광무·융희연간에는 중추원1등의관·봉상사제조·경효전제조 등 궁내부 각 아문의 장을 지냈다. 1910년 일제로부터 남작의 작위를 받았다.

42) 魏建功, 『龍喜詠春』, 『語絲』(第4卷, 第8期), 上海: 北新書局, 1928년2월, 317~325면. 호남도서관 소장 마이크로필름. 魏建功(1901~1980)은 중국 근대의 언어학자이다. 北京大學 교수 등 여러 대학의 교직을 역임했다. 1927년 4월부터 1928년 8월까지 京城帝國大學의 漢語講師로 서울에서 생활하였다. 이와 관한 사실을 김재욱, 『魏建功의 『僑韓瑣談』 試探』, 『중국어문학지』 29, 중국어문학회, 2009, 45~68면 참고.

尙書 徐伯徵은 『題獻館詠春冊』에서 말하기를, “조선은 중국 동부 국경의 번국이며 本朝(淸朝·인용자)에 이르기까지 책력을 삼가 봉행하였다. 도광 연간에 해마다 천자에게 조공하는 자리에 조회하였으므로 前後 잇달아 온 사신들을 궁궐에서 알게 되었다. 조선 사람들은 문장을 잘 짓고 예의도 잘 알고 있다. 그 후에 오는 사신들도 해마다 끊임이 없었다.”라고 하였다.⁴³⁾

여기에 언급된 ‘徐伯徵’이 바로 앞서 소개한 徐樹銘이다. 그는 조선 사신과 적극적으로 교류하였고 용희사의 여러 창화시집들이나 작품에 빈번히 나오는 인물이다. 그는 道光 연간에 중앙관료로서 年初의 朝會에서 조선 사신들을 알게 되었다. 조선 사신들이 문장을 능하여 예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 후 계속 조선 사신들과 교류하였다. 『龍喜社海東尋詩集』은 물론, 『獻館詠春詩冊』에도 빠짐없이 그의 시문이 실려 있다.

다음 자료는 한중 문인들의 모임을 알리는 集宴啓事이다. 모임의 시간, 장소, 사정, 참가자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자세하게 알리고 있다.

李東漢尙書正魯(文科 출신으로 玉署學士(홍문관 교리·인용자)였으며 지금은 判中樞府事이다), 李西齋侍郎靑榮(文科狀元이고 鼇春君을 세습했으며 지금 禮曹判書의 직함을 띠고 있다), 黃晩堂僕正章淵(文科 출신으로 玉署學士, 司僕寺正이다), 崔研農僉事性學(前年 『蘇海集』과 『尋詩集』에 詩가 실렸다), 金天羽孝廉永翼(2년 전 『江亭集』과 『池北集』에 詩가 실렸다), 李邦賢牧守錫魯(正使의 族弟이며 州郡 候選(생원 진사·인용자)이고 別號는 錦鼎散人이다), 畿輔先哲祠 君子館에서 삼가 시인들의 모임을 요청합니다. 시를 지어 증별하여(차례는 교분에 따라 하되 즉석 창작을 하지 않고 詩體와 韻字는 한정하지 않음), 작품들을 모아 장정하고 『獻館詠春集』으로 명명할 것입니다. 이날 巳時 午刻에 일찍 오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⁴⁴⁾

43) “徐伯徵尙書『題獻館詠春冊』云：“朝鮮東界屏藩，至國朝奉正朔惟謹。道光時以歲朝王會，識先後貢使於階墀。人解綴文，識禮義，其後至者無間歲。”(楊鐘義, 『雪橋詩話餘集』, 北京古籍出版社, 1992, 530~531면)

44) “李東漢尙書正魯(文科玉署學士, 現判中樞府事), 李西齋侍郎靑榮(文科狀元, 世襲鼇春君, 現帶禮曹判書銜), 黃晩堂僕正章淵(文科玉署學士, 現任司僕寺正), 崔研農僉事性學(前年『蘇海集』, 『尋詩集』有詩), 金天羽孝廉永翼(前兩年『江亭集』, 『池北集』有詩), 李邦賢牧守錫魯(正使族

위의 啓事 중에 언급된 이정로 일행은 冬至兼謝恩 使行으로 북경에 온 사람들이다. 정사는 이정로, 부사는 이주영, 서장관은 황장연이다. 이들은 1893년(고종30) 11월 2일에 辭陞하고, 1894년(고종31) 4월 13일 복명하였다. 1894년(광서20) 1월 20일 용회사 문인들은 畿輔先哲祠 君子館에서 조신 사신들을 초대하였다. 畿輔先哲祠는 張之洞(1837~1909)이 1879년(광서5)에 창건한 사당으로, 直隸省의 鄉賢들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다. 君子館에는 한 나라 河間獻王 劉德이 지은 日華宮의 벽돌 탁본이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獻館’이라고도 부른다. 선화회관과 마찬가지로 북경 宣武門 구역에 있기 때문에 문인들이 자주 모였던 곳으로 짐작된다. 그 날의 참가자와 지은 작품은 다음과 같다.

王鐵珊 序文

陶觀僕 五古三章 杜本崇 五古一章 徐世昌 五古一章 王繼昌 五古三章 宗室 增傑 五律一章
周克寬 五律五章 王以愨 七古一章 何桂芳 五古一章 沈兆祉 五古一章 成昌 七古一章
孟繼燾 七古一章 俞明震 七律三章 王鐵珊 七古一章 曾廣鈞 七律一章 羅維垣 集『文選』詩
楊觀圭 五古一章 毓俊 七古一章 洪汝冲 七律一章 彭清黎 五律二章 李登雲 七古一章
陳卓立 七古一章 徐樹環 五古一章 勞啓捷 七律一章 龍紱瑞 五古一章 劉名津 七律一章
章同錄 五律二章 勞啓揚 五律二章 勞遠葆 七律一章 黃膺與朝鮮使臣等六人唱和詩 共十章
黃徹(膺子) 七律一章 況周儀 七絕二首 印刷集宴啓事一則 並路張之洞『君子館記』⁴⁵⁾

이와 같이 서문 1편과 시 54수가 소개되어 있다. 모임에 참여한 양국 문인은 모두 38인으로, 『용회사해동심시집』의 참여 문인 25인보다 많다. 양자를 비교해보면 새로운 구원성들이 적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 魏建功의 글에는 작품이 실려 있지 않아 구체적인 양상을 검토하려면 다른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현관영춘집』의 창화시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만청이사회』와 『와설시화』이다. 『만청이사회

弟, 州郡候選, 別號錦岳散人), 於畿輔先哲祠君子館, 奉邀祠伯雅集, 賦詩贈行(先後隨交, 不即席作, 不拘體, 不限韻, 彙付裝池, 命曰『獻館詠春集』. 是日巳午刻, 敬祈蚤降, 幸甚企甚.” 『光緒甲午正月二十日宴朝鮮年貢使』.(魏建功, 앞의 책, 320~321면에서 재인용)
45) 魏建功, 위의 책, 321~323면에서 재인용.

』는 이정로와 황장연의 작품만 수록하였다. 『와설시화』는 이정로, 황장연의 창화시는 물론 李靑榮(字는 西齋), 李錫正(字는 邨賢), 崔性學(字는 研農), 金永翼(字는 天羽)의 시들을 수록하였기 때문에 자료적 가치가 훨씬 높다. 본 고에서는 그 중 김영익의 시만 뽑아 소개하도록 한다.

우뚝 솟은 푸른 나무가 아침 해를 가렸는데
 선무문 성 서쪽에 선철사가 있네.
 온 세상의 봄경치가 괴가에서 시작한 것은
 24번 꽃바람이 꽃시장에 불기 때문이네.
 亭亭碧樹覆朝曦, 宣武城西先哲祠.
 大千春色槐街蚤, 廿四番風花市吹.⁴⁶⁾

이 시는 畿輔先哲祠의 주변 풍경을 묘사하였다. 기보선철사는 북경 선무문 서남쪽에 있었는데 주변에 회나무가 번성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선철사가 있는 골목을 ‘槐街斜街’라고 불렀다. “廿四番風”은 “二十四番花信風”의 약어이다. 꽃 피는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을 말한다. 1년 24절기 가운데 小寒부터 穀雨까지 모두 여덟 절기 사이의 120일을 나누어 5일마다 1候로 잡으면 모두 24후가 된다. 1후마다 일종의 꽃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일러 ‘二十四番花信風’이라 하였다. 이 시에서는 바로 先哲祠 근처에 꽃시장이 있는 사실을 표현한 것이다. 이 꽃시장은 崇文門 밖에 있는 것과 함께 북경의 二大 꽃시장으로 손꼽혔다.

사행을 따라 세 번이나 북경을 유람하여
 용희시사에서 시 짓는 모임에 참여했네.
 구관은 예부터 한나라 때의 이름을 전하고 있고
 끊어진 벽돌에는 원래 군자의 덕행이 새겨져 있네.
 隨軺三度游京國, 龍喜詩盟盟硯北.

46) 袁嘉穀, 『臥雪詩話』卷7, 『袁嘉穀文集』, 雲南人民出版社, 2001, 第2冊, 450~451면. ‘大千’은 불교 용어로 ‘三千大千世界’의 준말이다. 全宇宙를 가리킨다.

舊館舊傳漢代名, 斷甃元銘君子德.⁴⁷⁾

여기서 김수익은 자신이 세 차례 북경을 다녀온 경험을 회상하였다.⁴⁸⁾ 이와 더불어 용회사와 인연이 있어 시를 창화한 적이 있음을 밝혔다. ‘舊館’과 ‘斷甃’은 君子館과 거기에 소장된 한나라 때의 벽돌 탁본을 가리킨다. 당시 모임을 가졌던 장소인 군자관의 역사와 특색을 소개하였다.

황금대 앞에 저녁 햇빛이 밝고
 도서와 제기 등 뛰어난 물건들 모여 있네.
 회랑에서 떠나는 시인들을 잠시 전송하는데
 성대한 연석의 술잔에 사신 수레의 깃발 비쳐 흔들리네.
 黃金臺前夕照明, 圖書彝器萃精英.
 回廊暫送詞人屨, 綺席杯搖使者旌.⁴⁹⁾

黃金臺의 옛터도 역시 宣武門 下斜街 근처에 있었다. 연행 사신들이 자주 이곳을 찾아가 유람하였다.⁵⁰⁾ ‘圖書’와 ‘彝器’는 先哲祠에 소장되어 있던 直隸省 鄉賢들의 저작과 유물 등을 가리킨다.

해동의 서생이 유쾌하게 만났더니
 강정과 지북의 연회는 이미 옛 꿈이 되었네.
 (원주: 경인년 봄에 강정의 모임을 참가하였다. 가을에 다시 와서 「지북정사분운시」를 읊었다)
 어깨 추켜세우고 시를 읊다가 다시 포도주 천 잔에 취하니
 하늘가의 저녁 구름이 흰 비단처럼 펼쳐져 있네.
 東海鯁生快相見, 舊夢江亭池北宴.
 (原註: 庚寅春會與江亭之集. 秋復至, 賦「池北精舍分韻詩」)

47) 원가곡, 앞의 책, 451면. ‘硯北’은 벼루 북쪽에 앉는다는 뜻으로, 글 짓는 일을 가리킨다.
 48) 네 번째 시에 의하면 김영익이 경인년(1890) 봄과 가을, 갑오년(1894) 봄에 각각 한 번씩 북경에 와서 모임에 참석하였다.
 49) 원가곡, 위의 책, 451면.
 50) 황금대에 관해서는 박지원의 『열하일기』 「黃圖紀略」 중 「황금대」와 「황금대기」 참조.

聳肩又醉千蒲桃。天末暮雲橫白練⁵¹⁾

시의 原註에 의하면, 김영익은 庚寅年, 즉 1890년 봄과 가을에 두 차례 북경에 갔다. 그 해 봄에는 江亭의 모임에 참가하여 『江亭集』에 시를 남겼고, 가을에는 『池北精舍分韻詩』를 지었는데 이 시는 『池北集』에 수록되었다.

2) 『填海禽言』

『填海禽言』은 용희사주 황응의 중요한 저작이다. 이는 용희사의 창화시 문집은 아니지만 19세기 말 한중 문학 교류를 증언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그 동안 서세창의 『晚晴簃詩匯』를 통해 제목은 널리 알려졌으나, 원문까지 소개된 적은 없다. 필자는 중국 호남도서관에서 이 귀중한 문헌⁵²⁾을 발견하고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고자 한다.

『진해금언』은 먼저 황응이 曹寅承⁵³⁾과 알게 된 과정을 소개하였다. 1891년에 황응이 조인승과 북경에서 만나게 되어 교류하며 같이 文天祥의 사당을 유람하였다. 북경을 떠날 때에 조인승은 자신이 손수 편찬하고 글씨를 쓴 두 권의 성리학 서적을 황응에게 선물하였다. 조선으로 돌아온 후에도 빈번히 서신왕래를 하였다. 후에 조인승은 일본과 담판했다는 이유로 파직을 당하였다. 1894년에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신의 문인 尹孝廉⁵⁴⁾을 북경으로 보냈다. 황응이 윤효렴과 북경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는 편지를 전

51) 원가곡, 앞의 책, 451면. ‘聳肩’은 蘇軾의 『贈寫真何充秀才』 중 “又不見雪中騎驢孟浩然, 皴眉吟詩肩聳山”에서 유래한 표현이다. 어깨를 추켜올리고 시를 읊는다는 뜻이다.

52) 黃膺, 『填海禽言』, 湖南圖書館 所藏本. 半葉9行19字, 雙魚尾, 白口. 索取號: 296.9/63.

53) 曹寅承(1827~1896)은 호가 東谷이고 본관은 昌寧이다. 1867년(고종4)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81년에 동지사의 서장관, 1890년에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94년에 일본은 동학농민군의 봉기를 계기로 군대를 파견하고, 조선의 내정을 간섭함으로써 조선을 지배하려 하였다. 이해 6월 5일 내정개혁조사위원의 일원으로 6월 8일 남산 老人亭에서 일본 측과 회담하였다. 조선정부가 독자적인 개혁을 실시하고자 6월 11일 校正廳을 설치하고 15인의 시원임대신을 당상으로 임명할 때 그 중 1인으로 선임되었다. 1895년 중추원의관으로서 춘천부 관찰사가 되었으나 明成皇后 시해사건으로 전국적으로 의병이 봉기하자, 춘천의 李恒老 문인 李昭應의 의병부대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54) 孝廉은 舉人의 別稱이니, 조선의 생원 진사를 이른다. ‘윤효렴’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확보하지 못했으며 後考로 남겨둔다.

달하는 동시에 조인승과 관련된 한일 정부 사이의 사건들을 자세히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조인승은 위기 속의 조선을 구하고자 백성들을 동원하여 직접 침략을 저항하려는 한편, 황응에게 청나라의 援助를 청구하는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후에 황응은 上海의 신문을 통해 조인승이 살해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비통하여 『전해금언』을 저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인승의 편지와 황응의 창화시를 소개하였다.⁵⁵⁾

『전해금언』은 19세기말 한·중·일 3국의 외교 사건에 관해 많은 정보가 실려 있지만 본고에는 조인승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조인승은 1890년(고종27) 謝恩兼冬至使行的 부사로서 입연하였다. 정사는 李珪永, 서장관은 鄭雲景이었다. 一行은 그해 11월 13일 辭陞하고 이듬해 4월 6일에 복명하였다. 조인승이 출발하기 전에 李建昌은 송별시 3수를 지어 주었다.⁵⁶⁾

옛날에 서장관이 되었을 때에는
푸른색 도포가 풀빛과 같더니
빛나는 황금 허리띠를 차고
지금은 예조판서 직함을 띠었네.
昔爲小行人, 綠袍如草色.
煜煜黃金帶, 今充大宗伯.

이를 통해 조인승은 이미 1881년(고종18)에 서장관으로 연경에 갔었다는

55) 『朝鮮東谷生以辛卯歲銜主命朝正京師, 相見莫逆. 嘗同拜文信國祠, 撫膺太息曰: “士夫當如是矣!” 後數譚燕, 酒酣從論時事, 輒皆裂舌結. …… 瀕行贈『古韓七賢言行錄』, 『四先生論理氣書』各一冊, 皆所緝錄而手書者也. 東歸後, 書歲一至, 所言多忠憤嫉俗. 尋以論交涉事, 忤執政罷職. …… 如得藉手各道義民必響應, 當有國書乞兵. 君其與同志忠誼之士, 言于當軸. 速發東邊兵, 虛張聲勢以應之. …… 後偶閱滬報, 有云: “朝鮮春川府觀察使曹寅承開諭亂民被殺.” 殆所謂謀定而後動, 而蚩蚩者徒逞血氣, 罔識機宜也. 不禁拍案叫絕曰: “士夫當如是! 東谷竟如是矣!” …… 越日將爲長歌哭之, 且欲招同人與東谷故者, 文以祭之. 酒數擗管, 悲來填胸, 竟不復能成一字. 烏摩! 精衛銜石, 東海誰填. 爰直書其事, 命曰『填海禽言』, 以諗世之有心人爲朝鮮哀而不僅爲朝鮮哀, 爲東谷哀而不僅爲東谷哀者.”(黃膺, 『填海禽言』, 호남도서관 소장본)

56) 李建昌, 『送曹東谷副使(寅承)入燕』, 『明美堂集』 권5, 『한국문집총간』 권349, 민족문화추진회, 2005.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사행은 進賀兼冬至歲幣使行이었고, 정사는 洪鍾軒, 부사는 金益容이었다.

중국과 조선이 원래 한 집안인 것은
 지금 시대가 아니라 이미 오래 되었다네.
 하물며 다사다난한 시기를 만났으니
 도의상 安危를 함께 해야 하리.
 中東本一家, 已久非今時.
 況值世多故, 義與共安危.

제1구와 제2구는 먼저 조선과 중국의 오래된 외교 관계를 언급하였다. 조선왕조는 명나라 초부터 청나라 말까지 500여 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로 존재하였다. 특히 한반도의 지리적 위치가 遼東와 北京과 인접하여 더욱 ‘一家’로 볼 수밖에 없다. 더불어 1880년대에 중국과 조선은 동시에 서양 세력의 위협을 직면하고 있어서 양국의 외교 문제를 처리할 때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면에 처해 있었다.

조인승의 삶과 사상에 관한 정보는 여타 자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사법품보』에 다음과 같이 간략히 소개되어 있을 뿐이다.

춘천관찰부를 점령한 춘천의병은 官衙를 의병진의 본영으로 삼았고, 한편, 당시 中樞院議官 曹寅承이 지난 臘月에 春川府觀察使로 赴任次 춘천에 내려올 때 官邑 近處 20리쯤에 떨어져 있는 德斗里的 旅店에 머물러 있으면서 義兵들을 曉諭靖頓하고자 中哨哨官 朴晉熙를 먼저 보냈다. 그러나 의병들은 박진희를 개화자가 보낸 開化哨官이라 하여 즉시 잡아 斬首하였으며, 그의 머리를 路上에 메달아 梟首해 놓고 義氣를 높이자 이 소식을 듣고 禍機가 임박함을 알게된 曹寅承은 부임하려던 생각을 바꿔 避身回程하여 塔洞里에 이르렀다. 그러나 馬堂里 尊位 李德一이 馬堂里·安保里·塔洞里的 各洞 洞任에게 號令하여 揮動케 하였다. 친일 개화관리 春川府觀察使 曹寅承 일당은 李德一 휘하의 下所任 金永之·朴學守와 酒店人 孫元石 등 各洞 사람들에게 붙잡혀 마

침내 춘천읍에 들어와 被害를 당하였다.⁵⁷⁾

다음으로 『만청이사회』에서 조인승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동곡은 사신으로 북경에 왔을 때 호부주사 황녹천과 교류하였다. 그는 시와 그림을 잘하였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해동사선생논이기서』와 『해동칠선생언행록』을 집록하였다. 평양에서 군대가 패배할 때에 녹천에게 편지를 보내 우리 군대가 다시 출병할 것을 희망하였다. 또 外職을 구하여 춘천부 관찰사가 되자 그 지방이 험준하고 백성들이 용맹스럽기에 이에 힘입어 큰일을 하고 싶었으나 난민을 효유하다가 졸지에 살해당하였다. 녹천이 『전해금언』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였는데, 아직도 가슴이 아프다.⁵⁸⁾

조인승의 事蹟은 당시 중국에 널리 알려진 것 같다. 『填海禽言』뿐 아니라 『臥雪詩話』⁵⁹⁾, 『雪橋詩話』 등의 책에도 이 사실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면, 중국 문인들은 조인승의 애국적인 행동에 감동을 받았던 듯하다.

조선사신 동곡 조인승은 대의를 깊이 알고 몇 번이나 북경에 와서 교류를 하였다. 그 후 들자니 일본군이 조선에 들어갔는데 조인승이 적진을 방문하여 항변하였다. 일본군이 “당신은 충신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당신과 같이 충성을 다 하면 우리의 군대가 국경까지 올 수 없을 것이요.” 라고 칭찬하였다. 얼마 후 전란으로 인해 은거하다가 일본인이 강제로 발탁하여 관직을 주었다. 조인승은 옹드려 숨고 대의를 위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용사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일본군을 소탕하여 나라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일이 누설되어 살해를 당하였다.⁶⁰⁾

57) 『司法稟報』1, 421면. 姜大德, 『前期 春川義兵과 堤川 湖左義陣-習齋 李昭應의 乙未義兵 活動分析-』, 『江原史學』 17·18合輯, 江原大學校 史學會, 2002, 264~265면에서 재인용.

58) “東谷以貢使至京師, 從黃鹿泉農部游. 工詩善畫, 覃心理學, 有『海東四先生論理氣書』, 『海東七先生言行錄』. 平壤師燬, 貽書鹿泉, 拳拳以我師再出爲望. 既乞爲春川府觀察使, 以其地險阻, 其民強悍, 將欲藉以有爲. 乃以開諭亂民倉卒見害. 鹿泉爲『填海禽言』記其事, 有餘恫焉.”(徐世昌, 『晚晴簃詩匯』 권200, 『續修四庫全書』 1633冊)

59) 袁嘉穀, 『袁嘉穀文集』, 第2冊, 雲南人民出版社, 2001, 729~730면.

魏建功은 『龍喜詠春』에서 용희사와 『獻館詠春詩冊』을 언급하면서도, “이 32명의 문인들의 시 속에는 우리 그 때 당시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소식을 조금이라도 발견하기 어렵다.”⁶¹⁾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填海禽言』과 같은 일련의 자료를 검토해보면 알 수 있듯이, 龍喜社主人 黃膺은 조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뒤에 戊戌變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여 중국에서 최초로 新學을 연구하는 近代新式學會인 南學會를 기획하고 佐辦까지 역임했다. 비록 戊戌變法은 실패하였지만 황응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다. 光緒年間に 이루어진 황응과 조인승의 교류에서 양자의 시대인식을 엿볼 수 있다. 황응과 마찬가지로 曹寅承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노력했지만 불행히도 친일관료로 간주되어 피살되고 말았다. 그러나 황응을 비롯한 용희사 文友들의 저술을 통해 그의 생애 사적은 매몰되지 않고 해외에 전할 것이다.

4. 결론

본고는 19세기 말 중국에서 한중 문학 교류의 중심 역할을 한 용희사의 활동을 연구한 것이다. 중국 호남성 장사시 소재 호남도서관에 소장된 자료들을 발굴·소개하면서 중국 호남 문인과 조선사인의 교류, 용희사의 구성원, 한중 문학 교류의 성과를 중심으로 고찰했다.

용희사는 1887년 호남성 선화현 출신 문인들이 주로 모이는 북경의 선화회관에서 창설되었다. 『만청이사회』, 『용희사해동심시집』, 『와설시화』, 『설교시화여집』 등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용희사의 구성원들은 매우 많아 지금까지 확인된 인물만 해도 40여 명이 넘는다. 그 중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勞啓捷, 龔鎮湘, 楊壽時, 李登雲, 洪汝冲, 章華, 俞明震, 曾

60) “惟曹東谷眞使寅承深明大義，一再至京相接。後聞倭入韓，東谷造敵壘抗辦。敵稱之曰：‘汝忠臣，人皆似汝忠，吾兵不至境矣。’其後因亂而隱，倭強官之，而曹伏匿，養死士，將以蕩寇存國。事泄被殺。”(楊鐘義, 『雪橋詩話餘集』, 北京古籍出版社, 1992, 530~531면) ‘深明大義’란 大體를 알고 大局을 돌아본다는 뜻이다.

61) “這三十二個人的詩裡邊，我們很難找到半點那時國際上風雲變幻的消息。”(魏建功, 『龍喜詠春』, 『語絲』第4卷 第8期, 1928年 2月, 323면)

廣鈞, 況周頤 등 9인을 새로 소개하였다. 그 중 유명진은 연암 박지원과 교분을 맺었던 兪世琦의 증손이기도 하다.

용희사의 문인들은 1887년부터 전통적인 사대 관계가 종언을 고한 1894년까지 조선 사신들과의 시문 창화 활동을 지속하였다. 『강정집』, 『지북집』, 『용희사해동심시집』, 『소해집』, 『헌관영춘시책』 등 창화시집과 『송군아집도』, 『강정도』, 『용희도』 등 양국 문인들의 모임을 그린 그림들을 통해 당시의 활발한 교류를 증명할 수 있다. 그 중 1894년(光緒20) 李正魯가 동지 정사로 입연했을 때 용희사 문인들과 창화한 시문들을 편찬한 『獻館泳春詩冊』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황응의 『전해금언』을 중심으로,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지 않았던 양국 문인들이 공유한 시대인식을 살펴보았다. 19세기 말의 긴박한 국제 정세 속에서 황응과 조인승이 어떻게 사고하고 시국에 대처했는지를 밝혀보았다.

아쉽게도 용희사와 관련된 창화시문집과 그림 등 자료들은 그다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앞으로 한중 양국 학계의 관심을 받아, 관련 자료들이 더욱 많이 발굴 소개되어 용희사와 한중 문학 교류의 실상이 전면적으로 조명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1. 단행본

龔鎮湘, 『善化館志』, 湖南圖書館 所藏 光緒14年(1888)善化會館刻本.
黃 膺, 『填海禽言』, 湖南圖書館 所藏本.
黃 膺, 『龍喜社海東尋詩集』, 湖南圖書館 所藏本.
徐世昌, 『晚晴簃詩匯』, 『續修四庫全書』 第1633冊, 上海古籍出版社, 2002.
周壽昌, 『思益堂集』, 湖南圖書館 所藏 清 光緒14年(1888)刻本.
『長沙徐氏續修族譜』, 湖南圖書館 所藏 同治2年(1863)東海堂木活字印本.
『語絲』, 上海: 北新書局, 第4卷 第8期, 1928年 2月, 317~325면, 湖南圖書館 所藏
마이크로필름.

李建昌, 『明美堂集』, 『韓國文集叢刊』349, 민족문화추진회, 2005.
李承五, 『觀華誌』, 『燕行錄叢刊』, 누리미디어, 2011.
李承五, 『燕槎日記』, 『燕行錄全集』권86, 동국대학교출판부, 2001.
李裕元, 『蓟槎日記』, 『燕行錄全集日本所藏編』권3, 동국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001.
李裕元, 『嘉梧藁略』, 『韓國文集叢刊』315, 민족문화추진회, 2003.

羅霖·龔篤清 編, 『湘人著述表』, 長沙: 嶽麓書社, 2009, 988면.
楊鐘義, 『雪橋詩話餘集』,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92, 530~531면.
袁嘉穀, 『袁嘉穀文集』, 昆明: 雲南人民出版社, 2001, 第2冊, 450~451면, 729~730
면, 825면.

2. 논문

강대덕, 『前期 春川義兵과 堤川 湖左義陣-習齋 李昭應의 乙未義兵 活動分析-』, 『江原史學』17·18合輯, 江原大學校 史學會, 2002, 259~275면.
김명호, 『동문환의 『한개시존』과 한중문학교류』, 『한국한문학연구』26, 한국한문학
회, 2000, 391~418면.
김명호, 『『열하일기』 ‘補遺’의 탐색』, 『동양학』 52, 단국대 동양학연구원, 2012, 1~
22면.
김재욱, 『魏建功의 『僑韓瑣談』 試探』, 『중국어문학회지』 29, 중국어문학회, 2009, 45

~68면.

유성준, 『『청시회』 소재 조선인시 고』, 『중국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1999년 제23권, 207~232면.

한영규, 『중국 시선집에 수록된 19세기 조선한시』, 『한국실학연구』, 한국실학학회, 2008년 제16기, 261~297면.

허경진·류경, 『晚清時期的 朝中文人詩社 龍喜社 小攷』, 『동아인문학』14, 동아인문학회, 2008, 165~188면.

唐 燕, 『清末民初湖南在京會館的演變』, 『文史博覽』, 2012年 第4期, 16~18면.

尹虎彬, 『清代的中朝文學交流』, 『中央民族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6年 第3期, 93~99면.

周秋光, 『湖南維新運動期間南學會的創辦與文明排外』, 『湖南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1998年 第5期, 112~117면.

晚清北京詩社‘龍喜社’與韓中文學交流

許放

十九世紀的韓中文學交流具有鮮明的時代特色。如果說十八世紀的兩國交流還停留在個人交流層面上的話，十九世紀便逐步昇華為文人集團之間的交流。仔細考察陶澍、董文煥、黃膺等人與朝鮮使臣進行的詩文唱和活動，就能夠清晰地把握這一時代趨勢。特別是以黃膺為中心結成的龍喜詩社，在十九世紀末韓中文學交流史上留下了濃墨重彩的一筆。

龍喜社具有鮮明的地方特色。其地點設在北京宣武門外的湖南善化會館內，詩社成員也大部來自湖南省。光緒年間湖南文人與朝鮮使臣的交流始於周壽昌，徐樹銘與黃膺則繼承了這一傳統，並且通過龍喜社的集會使兩國文人交流達到了一個前所未有的高度。

龍喜社的參與人員至少在四十人左右，並且進行了頻繁的詩文創作活動。詩社或將唱和作品結集刊行，或形成畫作以供收藏。現在可知的便有作品集五種、畫作三種。其中《龍喜社海東尋詩集》更是不止一次印行出版。

本文通過歷史文獻輯錄出龍喜社唱和詩集《獻館咏春詩冊》，並對其主要內容、參加人員、收錄作品進行了詳細介紹。光緒甲午年（1894）所進行的這次文人集會具有其特殊的歷史意義，因為宗藩關係的結束與國際關係的急劇變化都使這種朝鮮燕行使臣與中國文人的交流形式走下了歷史舞臺。

中國湖南圖書館所藏《填海禽言》是龍喜社主黃膺的重要作品。此書首先回顧了作者與曹寅承的交往，並通過曹寅承門人的講述記載了朝鮮王朝末期政壇的動盪，以及曹寅承欲拯救國家於水火之中的雄心壯志。但是由於準備不周與倉促行動，導致事未成而身先死。黃膺十分敬慕曹寅承的愛國之情，特意創作了《填海禽言》來紀念這位愛國志士。此書內容後來廣為流傳，成為十九世紀末韓中交流的一個標誌性事件。黃膺日後也積極投身於維新變法活動，參與創辦南學會，為變法維新而奔走。

十九世紀後期的韓中交流發生於特殊的歷史條件之下，故此在對這一時期進行研究時，有必要與之前的歷史時期進行區別與比較。不但要從中發現歷

史傳統的繼承，也要找出新的時代條件下的創新與發展。

關鍵詞: 龍喜社, 徐樹銘, 黃膺, 曹寅承, 韓中文學交流

접수일자: 2013. 8. 31

심사기간: 2013. 8. 31~2013. 11. 20

게재결정: 2013. 11. 20